

# 초연함이 위기 대처의 비법, 문제해결은 자각에 달려



## 육문 스님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 회장

“갈게는 사키지 마시오. 나는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말도 많이 못해요”

스님은 첫 인사부터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수행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이하 선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육문 스님은 경북 군위 천년고찰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현재 스님은 2004년 3대 회장으로 취임해 7년째 선문회에서 정관을 통과시켰다.

선문회는 비구니 선원의 기강을 강화하고 올바른 참선 수행인을 위한 도량을 만드는 목적으로 2000년 4월 은해사 백흥선원에서 전국 35개 비구니 선원 중 21개 선원의 입승, 주지, 도감, 원주 등 27명이 모여 결성했다. 창립 이듬해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석남사 주지 영운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통과시켰다.

200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선문회는 비구니 선원 회통사 인근 북한산 국립공원 관동도로 반대, 중국 선 수행체험, 한국 비구니 선맥(禪脈) 계보정리, 담선(談禪)법회 및 방부와 입방자격요건에 대한 문제 등을 통해 한국 간화선 수행의 전통을 이어왔다.

선문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간의 공부내용, 행사자료 등을 정리해 <선문담선록>을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문회는 8월 18일부터 은해사 백흥암에서 1박 2일 동안 <돈오입도요문론>을 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해국 스님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한다.

육문 스님 한국 비구니 승단의 선풍을 잇는데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육문 스님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초발심이다. 스님은 공부가 끝나고 나서 무엇보다 먼저 한 일이 비구니 스님들의 전문 수행체를 만드는 일이었다.

1982년부터 팔공산 자락에 있는 백흥암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스님은 1982년부터 10년에 걸쳐 극락전 개금불사를 비롯해 요사채 확장 개축, 설선당과 향적당을 불사했다. 그리고 스스로 주지의 권위도 내려놓았다. 공양간 채공, 발 운력은 물론 절 앞까지 이어지는 길을 닦고 돌을 등짐으로 나르기도 했다.

열일곱 살에 어렵게 출가한 스님은 “부모에게 큰 빛을 지고 스님이 되었으니 문을 잠궈 놓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잘 먹고 잘 입는 편안한 수행은 하지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육문 스님은 백흥암으로 출가한 행자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기로 유명하다. 행자들은 3년 동안 허락 없이 바깥출입을 할 수 없었으며, 옷 한 벌도 달도록 기워 입으며 초발심을 단속하며 지키게 했다. 그 엄하기가 서울 같아서 절집에서 스님은 ‘팔공산 호랑이’라는 별호를 얻기도 했다.

육문 스님은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을 철칙으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경전을 보고 참선을 한다. 남에게 신세지는 일을 멀리하

는 스님은 지금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있다.

1998년 군위 법주사 주지로 온 육문 스님은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불사를 시작했다. 법주사는 신라 소지왕 15년(480년)에 삼지 국사가 창건한 군위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지만 육문 스님이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경내는 초라했다. 1년 만에 땅 다지기를 마치고 77명의 대웅전, 명부전, 선원, 법당 등 대불사를 진행 중이다.

육문 스님과의 만남에는 육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소장, 이희숙 서울여대 외래교수가 함께 했다.

선문회(禪門會) 결성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916년 1월 만공 스님(1871-1946)의 영향으로 수덕사 견성암에 최초로 비구니 선원이 개설됐고, 1918년 통도사 육원암이 최초 비구니 강원으로 정해지면서 비구니 강원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비구니 선원이 개설된 지 100년이 지나면서 기강이 흐트러지고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비구니 선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39군데나 되지만 수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공부도 하지 않으려 하고, 방부를 들여놓고도 말없이 다른 곳으로

개혁회의 주역, 종회의원 지내며 불평등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해 비구니 스님 종단 참여 발판 마련

가는 일도 맞습니다.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게 수행의 과정인데 서릿발 같은 어른스님들의 수행면모를 본받기는커녕 후배 수행자들이 잘못된 모습을 배울까 걱정스러운 때가 많습니

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원의 기강을 세우고 황소라도 잡아서 문뜰로 밀어 넣어 보리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24살, 처음 선방에 갔을 때 선방 스님들의 수행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밤 10시에 방선(放禪)을 했는데 눈을 떠보면 새벽 1시, 2시에도 스님들은 ‘흐트러짐 없이 저렇게 무섭게 정진을 하는구나’ 하며 일어나서 흥내라도 내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이겨내기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양진암에서 빈 항곡 큰스님이 “육문아 너는 밤새 잠만 자고 도는 언제 깨질 건고”하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비구니 승가는 1600년 넘게 수행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조계종 출가승의 절반이 비구니이고 또 최근 40여 년 간 괄목할만한 성장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계종 종단에서는 비구니의 역할과 활동이 조금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비구니 교단과 수행전통이 살아있는 몇 안 되는 불교국가입니다. 비구니 구족계를 받는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는 곳은 한국과 중국, 대만 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15년전 만 해도 종단에서 비구니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4년 종단개혁 때 비구니스님들의 참정권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중앙종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비구니스님들은 팔경계(八敬戒)를 들어 비구니 참여를 반대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물이 든다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참 스님”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단 개혁회의는 종단 참여확대, 총무원·포교원·교육원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확보, 중앙종단 재정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종현 개혁은 개혁회의의원들 사이에서조차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난항을 겪었다.

개혁종단 이후 조계종 종헌중법에도 ‘총무원장은 비구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중 비구니 정원은 10명으로 제한했다. 교구본사 주지에 비구니는 임명되지 못하고 산중총회에도 비구니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민주적이지 않는 불평등한 처사였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한 스님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육문 스님이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의 중앙종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스님께서는 스스로 엄격한 수행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가 여의치 않으면 자주 화장막에 들렀다고 하시는데, 어떤 연유이신가요?

-정진이 늘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맑게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때 정진이 잘 안 되면 ‘이 주인공 누구냐’ 하고 계속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화장막으로 갔습니다.

우리 몸은 화장을 하고 나면 한 줌 밖에 안 됩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된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자연 사대(四大)에서 다 빌려온 것입니다. 50년이고 70년이고 우리가 실컷 써먹고 애착이 붙어 안 떨어지려고 해도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느끼면 수행에 더 매진할 수 있습니다.

참 수행자라면

-방안에 앉아서 수행정진 하는 분도 훌륭하지만 민생에 뛰어들어 불보살의 역할을 하는 분은 정말 존경할만한 분입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중생에게 회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전속 글자를 외워서 말하는 것은 법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상대방의 수행정도와 근기에 맞춰 이야기 하면 듣는 사람도 신심이 나게 됩니다. 각고의 수행정진을 통해 얻은 법문은 부처님의 말씀이 자기 소리가 돼 들리는 이의 심금을 울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포교고 참된 중도입니다.

삶이 무척이나 고단한 요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지순례**

**\* 출발 확정**

- 8월 30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490,000원
- 9월 16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4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205,400, 가이드, 기사 팀 \$50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불교성지 단체문의는 날짜에 상관없이 출발 가능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이티오 7일

■ **지장도량 구좌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9월 16일 출발 1,590,000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공동경비 \$50

8월, 9월 출발 가능

- ☞ 방콕 / 파타야 5일 (특급) 다양한 특전 제공. 499,000원 부터 -
- ☞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599,000원 부터 -
- ☞ 창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일. 699,000원 부터 -
- ☞ 북경 / 연길 / 백두산 5일. 990,000원 부터 -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안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 02)365-7747

미안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용왕사**

초개와 같은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한  
구국의 기도가 아니면  
나의사건엔 결코  
굴하여 무릎을 꿇는 일은 없을 것이다

6.29 민주화의 실천을 추구하는  
하늘에 천명(天命)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께 3일전  
정식공문으로 전달한 동양제일의 심령학자  
나라를 지키는 호법선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

(금룡 김진걸 시집 피와 영혼의 소리 서서 중에서)

**정신병 신병 무속생활 하기 싫은 분 무당 신 책임지고 떼어 드립니다.**  
철학 심령학 사업 송사 학업고시 등과 병원 등에서 치료해도,  
낮지 않고 고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처방 있습니다.

문의 : 051)852-5879 / 011-599- 5875 (사전예약) 부산 시청 뒤 양정쪽 100m

국가를 지키는 호법선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 불교의 꽃, 큰스승 **용왕사 金龍大師**

불자들에게 힘겨운 삶을 청량하게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하심(下心), 곧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부처님은 늘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고 했으며 인과를 철저히 믿고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위기에 초연해 지십시오. 문제해결은 자각에 달려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느라 애를 썼습니다.

비구니 선원의 청구 기강한 목적으로 '선문화' 결성, 간화선 수행전통 이어 비구니 수행공간 위해 불사 매진중

그 답은 오로지 수행정진입니다. 수행정진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이 선해지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말과 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과응보가 있음을 잊지 말고 수행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이상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육문 스님은...

1946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1962년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충남 문수사에서 성태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덕사에서 동산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았다. 1970년~1980년 양진암, 내원사, 해인사 삼선암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 후 1974년 속리산 범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9~1981년 동화사 양진암, 백흥암에서 입승을 역임하고 1981년 백흥암 도감을 지냈다. 1982~1998년 백흥암 극락전 개금불사, 설선당, 향적당을 불사하고 무이당과 요사채를 확장 개축 불사했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 의원 및 상임의원, 11대 총회위원을 역임했다. 2000년 백흥암 선원장, 2004년 군위 범주사 주지, 백흥암 회주, 선문화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 비구니 선맥의 역사>

비구니 승단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선종(禪風)이 크게 발전했다. 많은 고승이 나타나면서 단절되었던 비구니 법통도 되살아났다. 근대 비구니 선맥을 다시 일으킨 법회 스님, 부산 범어사 대성암에 최초의 비구니 선방을 개설한 만성 스님, 한국 비구니계 최대 문중을 형성한 선각 분공 스님, 개화기 신여성 운동을 주도하다 불문에 귀의한 일엽 스님, 일타 스님의 누이로 20여년간 견성암에 머물며 후학들을 가르쳤던 응민 스님 등은 모두 당대 최고의 선승이었던 만공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았다. 특히 법회 스님(1887~1975)은 1901년 비구니 귀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덕사 견성암 비구니 총림원장으로 주석하면서 수많은 후학을 배출했다. 월해 스님은 묘연 스님(수원 봉녕사 승가대

학 학장)의 은사로, 청담 스님과 인연으로 출가해 성철, 자운 스님 등의 영향을 받았다.

1962년 조계종이 성립된 이후 1968년 비구니들의 모임인 대한불교비구니 우담바라회(회장 은영, 천일, 지명 등)가 발족했다. 정화운동에 동참하여 조계종 창립에 큰 기여를 한 비구니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단합하여 문중계보를 정리했다. 우담바라회는 1985년 9월 5일 석남사에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로 재결성하고 총회·계단 등 종단의 중무 행정에 참여하고 기여했다. 또 일엽·천일·광호·세등 스님은 대중 교화에 은영·자현 스님은 사회복지에 광호 스님은 해외포교에 힘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1981년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해 대학교육도 권장함으로써 많은 비구니들이 비구니 승가대학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경학을 시작하기도 했다. 현재 비구니 선원은 예선 견성암, 합

천 광명선원, 경주 금련선원, 경주 금선선원, 고층 금담사, 양산 내원사, 대구 내원암, 산청 대원사, 영천 백흥암, 논산 법계사, 용인 법문사 제일선원, 예산 보덕사, 합천 보현암, 대전 보전암 복전선원, 대구 부도암, 월전 불영사, 합천 삼선암, 울산 석남사, 대전 세등선원, 보은 수정암, 서울 승가사, 남원 승연선원, 합천 양수암, 대구 양진암, 상주 용흥사, 청도 운문사 문수선원, 의정부 원호사, 완주 위봉사, 평창 육수암, 문경 윤필암, 평창 지장암, 장성 천진암, 보은 탈골암, 경산 향림사, 용인 화운사, 의정부 회룡사, 경주 흥룡사, 대구 기초선원 등 39곳이 있다.



선문화 10년 행보를 정리한 <선문담선록>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정진력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다. 그것은 날씨 이야기이다. 아무리 낯선 자리라 해도 서로 가장 편한 대화가 날씨이기 때문이다. 웬 폭우가 전국을 강타한단 말인가. 만약 비가 시나브로 내렸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쉽 없이 거꾸꾸꾸 내린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을 낳았다.

우리말에 '낙숫물이 성돌을 뚫는다'는 말이 있다. 일을 함에 중단 없이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정진의 위대함을 역설한 것이라고 본다.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히 오락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단어의 구성으로 보아 '재 창조'라는 뜻이다. 이미 세상에 나왔거나 기록된 것을 유용하고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레크리에이션이 의도하는 바 일 것이다. 또 rebirth를 보자. 재생이나 환생이란 말이다. 삶의 대열에서 낙오되었다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다시 태어났다고도 한다. 같은 육신을 놓고 어떠한 정신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실히 드러낸 말이 정진이 아닐까 한다.

도량에 복숭아나무 두 그루가 붙이면 담홍색의 자태를 드러낸다. 요사이의 열매를 맺어 매 일 크기와 굵기, 색의 농도가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연약한 꽃잎이 변하여 열매를 맺었다.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저 복숭아 뜰기는 언젠가는 불그스름한 빛깔로 익어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긴 시간이 필요하고 온도와 습도도 조절해 갈 것이다. 마침내 수밀도(水蜜桃)가 되어 복숭아화채로 올려 질 것이다. 여기서 또 부단한 정진의 묘미를 터득하게 된다.

정진(精進)을 범어로 vīrya 라고 한다. '용기, 용맹, 힘'을 뜻한다. 정진력의 력(力)은 bala 이다. '힘, 정당함'의 뜻이다. 동사는 bal로 '숨쉬다, 곡식을 저장하다, 부를 지키다'는 뜻이 있다. 힘이요 하면 일반적으로 잘 단련된 근육 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흔한 숨 쉬는 행위가 힘이요 인도의인 사유세계가 우리의 석고화된 머리를 일깨운다. 단 순한 숨, 들숨과 날숨이 어찌 힘이 될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부처님의 수식관을 상기시키면 의구심은 쉬 풀린다.

정진력이란 곧 숨쉬기에서 용기와 용맹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 어떤 풀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거대한 밀립이나 설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그 단순한 호흡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만끽해 본다. 정진의 힘은 단순히 악을 쫓고, 선을 닦기

위한 노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힘은 산을 뺨을 만하고, 의기는 세상을 뒤덮을 만 하다는 뜻의 역발산세기개세(力拔山兮氣蓋世)한 항우(項羽) 장사가 육체의 힘을 드러냈고, 로마 공화국의 최후를 빛나게 한 위대한 정치가 키케로(Cicero)는 말의 힘을 보였다. 그리고 침묵으로 정진력을 드러낸 부처님의 정신의 힘은 그 무엇에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갖는다.

인도에서는 인생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젊음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젊음을 그들은 가장 재미없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초연함이다. 세상사에 초연하고 생존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탐구하고 삶의 근원을 공부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립 없는 삶이다. 인도인들은 태생적으로 광대한 우주의 섭리를 기억하고자 하지 않았다. 생노병사의 싸이클에서 벗어나고자 허둥거리지도 않았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순환의 법칙을 숭고하게 수용하였다.

정진은 나숫물이 성돌 뚫듯 중단없이 노력해 원하는 바를 성취 하는 것이다 참된 정진은 우치함을 깨우는 '각성제'

슬기로운 인간의 예지가 옛보인다. 정진이라고 하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채우게 된다고 가감법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또 뭔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의 충만함으로 이해하려고만 할 일도 아니다.

참된 정진이란 채우는 작업만이 아니라 가득 차기에 포만감으로 주변을 볼 수 없고 자신을 돌아 볼 수 없었던 우치함을 일깨우는 각성제쯤으로 이해해 보자. 그렇게 되면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충족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모든 경기장에서 승리하고자 출발점에서 있는 선수의 모습을 그려 본다. 얼마나 가슴이 풍덩거리며 전신에 식은땀이 흐를까. 반면에 관중석에 앉아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객의 여유로움에서 느끼는 기쁨은 더 클 수도 있다.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을 베블린 효과(Veblen effect)라고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베블린의 설이다. 예컨대 다이아몬드는 비싸면 비쌀수록 여성의 허영심을 사로잡게 된다고 한다. 우리사회가 점점 짝퉁이 범람하고 있는 현상도 다름 아닌 허영심을 부추긴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본다. 정진의 힘은 베블린 효과도 이내 잠재울 수 있는 묘약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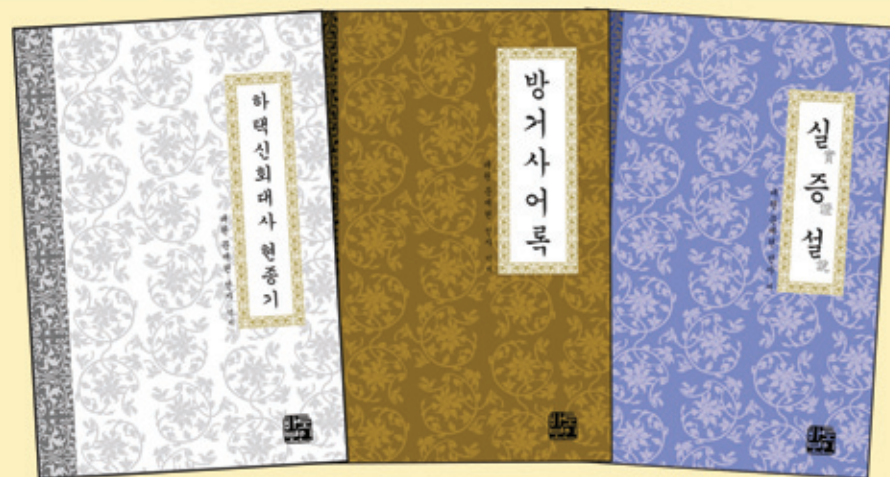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Advertisement for Hae-tak Shin Hui-daesa Hyun Jong-gi. Text includes '육조의 법을 천하에 세운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 어록', '실증의 일구 실증설 실증의 법문 실증설'.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세계 최대의 공인진 선문염송 30권 중 17권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이 천하에 우뚝하도록 한 장본인, 하택신회 대사의 현종기. 대원 선사님이 실경지가 드러나도록 바로보여 빛냈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찌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할 수 있었을까.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방거사의 일상의 함이라 하리.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